

## ‘성범죄자’ 광주 10개교 중 7개교 1km 내 거주...대책 시급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도 학교 인근 거주

김영호 의원 “가중처벌·완전격리 등 대책 강화”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 10개교 중 7개교의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남은 10개교 중 3개교이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서대문을)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 인근 성범죄자 거주 자료(9월 6일 기준)’에 따르면 1만2017개 중 학교 반경 1km 내에 공개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학교는 5911개교로 49.1%에 달했다.

광주의 경우 초·중·고 315개교 중 1km 이내에 성범죄가 거주하고 있는 학교는 210개교로 66.7%의 비중을 차지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초교의 경우 154개교 중 102개교, 중학교 93개교 중 63개교, 고교 68개교 중 45개교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도 162개교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지역은 초교 451개교 중 104개교, 중학교 255개교 중 72개교, 고교 146개교 중 52개교로 평균 26.8%(228개교)로 분석됐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학교는 160개교이다. 전국적으로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서울의 경우 80%로 확인됐으며 부산 76%, 인천 69.2%, 대구 69.1% 순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학교는 3915개소로 66.2%이다. 최근 3년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는 2018년 3219명, 2019년 2753

명, 2020년 2607명으로 총 8579명이다. 김영호 의원은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이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여가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간의 유기적인 공조 체계 구축과 예방책 마련을 위한 아낌없는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도 끊임없이 파생되고 있는 만큼 성범죄자에 대한 가중 처벌과 안전한 사회격리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재환기자

## “가을밤 드론에 CG까지...명량대첩 해전 현장서 미디어로 즐겨요”

30일 울돌목서 명량대첩축제 개막  
 주무대 가로 20m·세로 5m 대형 스크린  
 드론 300대로 ‘명량해전 일자진’ 펼쳐



가을밤 진도 울돌목에서 1597년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에 맞서 대승을 거둔 세계사에서 빛나는 명량해전의 감동을 CG를 이용한 미디어로 재현된다. (해전 재현 시안 이미지=전남도 제공)

“가을밤 명량대첩의 감동을 울돌목 현장에서 미디어로 즐기세요.”

전남도가 오는 30일 개막하는 2022년 명량대첩축제에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미디어 해전 재현’ 첫 선을 보인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명량대첩축제가 오는 30일부터 3일간 진도-해남 울돌목에서 컴퓨터그래픽(CG)을 활용한 미디어 해전재현, 명량트롯가요쇼, 강강술래 경연 등으로 다채롭게 펼쳐진다.

1597년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에 맞서 대승을 거둔 세계사에서 빛나는 명량해전의 감동을 느끼도록 ‘울돌목 페스타, 명량 빛을 쬐다’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축제 첫 날인 30일에는 1761만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 ‘명량’과 최근 영화 ‘한산(용의 출현)’을 연출한 김한민 감독이 ‘이순신과 시대정신’을 주제로 초청강연을 한다.

개막식은 명량대첩 미디어 해전재현 ‘범 내려온다’로 유명한 이남치 밴드공연, 드론&불꽃쇼 등으로 다채롭게 펼쳐진다.

특히 명량대첩 해전재현은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미디어 상영 방식으로 선보인다. 지금까지 어선을 동원해 어민들이 재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던 것과 달리, 가로 20m·세로 5m의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울돌목을 스크린에 그대로 담아내고 해상전투를 컴퓨터그

래픽으로 그려내 새롭고 특별한 감동을 준다. 미디어 해전재현은 주무대인 진도 승전무대에서 축제 마지막 날까지 저녁 7시 이후 계속 감상할 수 있다.

둘째 날인 10월1일은 해남 오구굿, 온겨레 강강술래 한마당 등 전통공연과 전국청소년가요제, 유명 트롯가수인 김용임, 조항조가 참여하는 명량트롯가요쇼 공연 등이 펼쳐진다.

마지막 날인 10월2일은 진도 다시래기, 평화의 만가행진, 우수영 부녀농요 등 당시 희생된 조선수군과 일본수군의 넋을 달래고 평화와 안정을 기리는 공연이 펼쳐진다.

상여를 메고 가며 전쟁으로 희생된 영혼을 달래는 평화의 만가행진은 관광객과 함께 전쟁의 아픈 역사를 가슴에 되새기고 새롭게 치유하는 계기로 승화될 것으로 보인다.

축제 기간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하고 삼도수군통제사로 임명된 후 조선수군을 재건하기 위한 44일간 역사적 사실을 전시한 8개 시군의 체험부스도 운영한다. 8개 체험부스를 모두 방문해 정보부스(QR)코드로 인증을 받은 관광객에게는 다양한 기념품도 제공한다.

축제장 주변에는 관광지도 준비한다. 해남에는 대흥사, 달마산 도솔암, 공룡박물관, 팽곶해양자연사박물관, 고산윤선도유적지가 대표적이다.

진도에는 윤림산방, 진돗개테마파크, 향토문화회관(토요민속여행상설공연), 진도점도웰빙길, 송가인 마을&송가인 공원 등이 유명하다. 명량해상케이블카는 축제 기간 모든 관광객에게 지역민 할인요금(일반케빈 1만원·크리스탈케빈 1만4000원)으로 운영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 실외 마스크 오늘부터 전면해제

“전적으로 개인 자율 선택에 맡겨”

50인 이상 집회·공연·경기도 자율 착용  
 지난해 4월 의무화 이후 약 17개월만  
 코로나 유증상자·밀집상황 착용 권고



오늘부터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지난해 4월 실외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약 1년5개월 만이다.

25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26일부터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 집회와 공연, 스포츠 경기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지난 5월 초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지만 밀집도 등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집회에서의 착용 의무는 유지했다. 이에 따라 ‘흡백쇼’ 등 콘서트나 야구경기를 관람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했다.

그러나 이제 인원과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 조치가 전면 해제된다. 실외 마스크 착용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율적 선택에 맡긴다.

정부는 최근 확진자와 위중증·사망자가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고 실외의 경우 실내보다 감염 위험이 크게 낮다는 점을 고려했다. 해외 국가 대다수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고, 현재 공연·스포츠 경기에서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관람객 비중이 적은 점도 고려한 결정이다.

다만 ▲발열·기침·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합성·합창·대화 등 비말(침방울)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실외더라도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25일 오후 인천 문학동 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2 KBO리그 SSG 랜더스 대 LG 트윈스의 경기를 찾은 관중들이 마스크를 쓰고 응원하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중대변에 따르면 내일부터 실외마스크 착용 지침과 관련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등의 관람객이 50명을 넘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규제를 없앴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완화 조치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조치만 해제된 것으로,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며 “상황에 맞는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취재본부

## 2022 장성 황룡강 가을꽃 축제

10.8. (토) ~ 10.16. (일)  
 장성 황룡강 일원

3년의 기다림... 다시 시작된 설렘

주최 Jangseong 장성군  
 주관 장성군축제위원회